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3			제 () 선택
----	--	------	--	--	--	---	--	--	----------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가 강조한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오늘은 관직을 수행하려는 자네에게 조언을 하려 하네. 천하란 신묘하여 인위로는 다스릴 수 없다네. 인위로 다스리는 자는 천하를 망치고 인위에 집착하는 자는 천하를 잃게 되네. 그래서 성인(聖人)은 “내가 무위(無爲)하므로 백성이 저절로 선하게 되고 내가 일을 벌여 놓지 않으므로 백성이 저절로 부유하게 된다.”라고 말했다네.

- ① 일체의 번뇌가 소멸된 이상적 경지[涅槃]로 중생을 인도한다.
- ② 문명의 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천하의 이익을 도모한다.
- ③ 어떤 일이든 왜곡이나 조작 없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처리한다.
- ④ 성현이 제정한 예(禮)를 익혀 자신의 타고난 성품을 교정한다.
- ⑤ 감각적 경험에 근거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선과 악을 분별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하늘[天]이 준 벼슬이 있고 사람이 주는 벼슬이 있다. 인의충신(仁義忠信)은 하늘이 준 벼슬이다. 공(公), 경(卿), 대부(大夫)는 사람이 주는 벼슬이다. 사람이 주는 벼슬을 얻고 하늘이 준 벼슬을 팽개치면, 사람이 주는 벼슬도 잃게 된다.

- ① 인의보다는 상벌로써 다스릴 때 왕도(王道)가 실현된다.
- ② 의로운 일을 반복함으로써 양지와 양능을 형성해야 한다.
- ③ 대인과 소인은 모두 남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타고난다.
- ④ 군주는 천명(天命)을 부여받은 존재이므로 교체될 수 없다.
- ⑤ 일반 백성은 향산(恒産) 없이 향심(恒心)을 유지할 수 있다.

3. (가)를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국가의 구성원은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세 계층으로 나뉜다. 이들은 타고난 성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한 가지 일을 담당하며 다른 계층의 일에 참견하지 않고, 모두 절제를 갖추어 서로 반목하지 않는다.
(나)	학생: 이상 사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교사: ㉠

- ① 구성원의 합의로 만들어진 선의 이데아에 따라 통치됩니다.
- ② 구성원은 자유롭게 자신의 계층과 직업을 고를 수 있습니다.
- ③ 각 계층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재산을 공유합니다.
- ④ 각 계층은 자신의 덕을 발휘하며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 ⑤ 통치자의 정치권력으로부터 철학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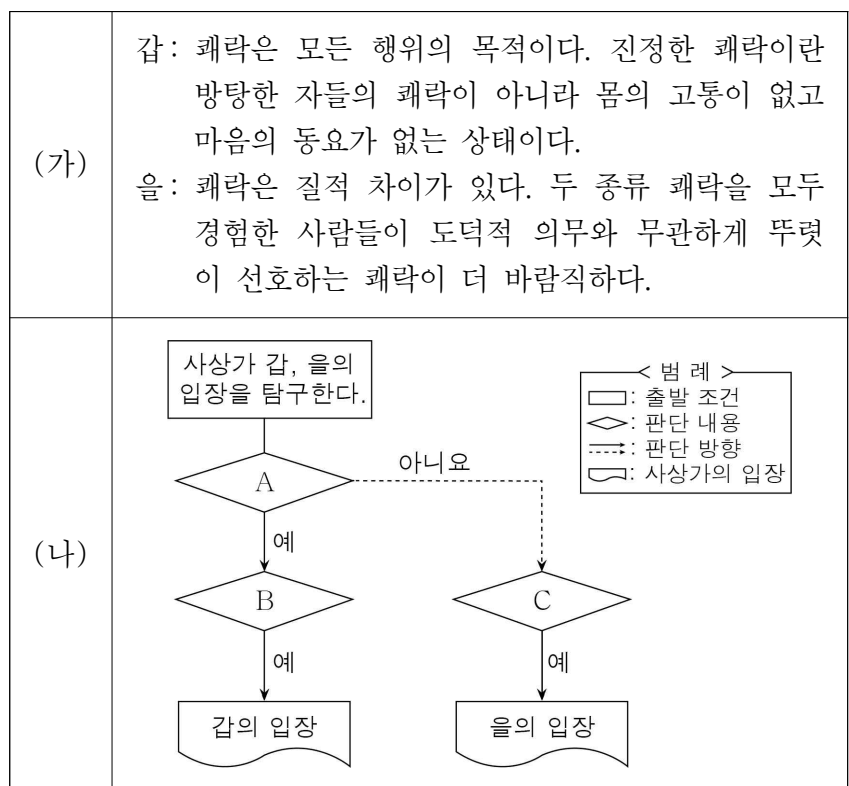
4. 다음을 주장한 현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삶이란 인간과 환경의 조화가 깨지고 다시 회복되는 리듬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이 저항과 갈등을 극복하여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갈 때 삶은 성장한다. 성장 자체가 도덕의 유일한 목적이다.

- < 보 기 >
- ㄱ. 지식의 오류 가능성을 부정하고 지성을 발휘해야 한다.
 - ㄴ. 도덕은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 ㄷ. 실제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산출하는 지식은 가치를 갖는다.
 - ㄹ. 인간이 성장하는 데 기여한 이론은 영원불변의 진리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5. (가)의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 보 기 >
- ㄱ. A: 개인의 쾌락보다 사회 전체의 쾌락을 추구해야 하는가?
 - ㄴ. B: 진정한 쾌락은 사려 깊은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는가?
 - ㄷ. B: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공적인 활동을 멀리해야 하는가?
 - ㄹ. C: 지적 쾌락은 단순한 감각적 쾌락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6. 한국 불교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진여문은 더러움과 깨끗함이 통한 모습이고 생멸문은 더러움과 깨끗함이 별도로 드러난 모습이다. 두 문[二門]은 다르지만 서로 배척하는 것이 없고,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를 곧 일심(一心)이라 한다.
 을: 돈오와 점수의 두 문은 모든 성인(聖人)이 밟아 온 길이다. 과거의 성인도 먼저 깨달은 뒤에 닦았고, 그 닦음에 의해 증득(證得)하지 않음이 없었다. 해탈은 깨달음에 의지해서 닦고 익혀야 도달할 수 있다.

- ① 갑: 모든 존재와 현상은 마음[心]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 ② 갑: 각 종파의 이론을 하나인 근원에 따라 회통해야 한다.
- ③ 을: 돈오는 습기(習氣)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도 가능하다.
- ④ 을: 깨달음의 완성을 위한 수행에 경전 공부는 필요하지 않다.
- ⑤ 갑과 을: 자신을 위한 수행과 중생 구제는 결국 다르지 않다.

7. 근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행위가 일어나는 데 있지 않고, 오직 의무로부터, 즉 도덕 법칙을 위해서만 행위가 일어나는 데 있다.
 을: 행위와 품성이 유덕하다거나 악덕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행위와 품성을 바라볼 때 특별한 종류의 쾌락이나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 보 기 >

- ㄱ. 갑: 보편화 가능한 준칙에 맞는 모든 행위는 도덕적이다.
- ㄴ. 갑: 도덕 법칙은 자율적 인간에게 의무로 부과될 수 없다.
- ㄷ. 을: 선과 악은 감정으로 구별되지만 객관적 실재는 아니다.
- ㄹ. 갑과 을: 이성과 감정은 모두 도덕적 행위에 기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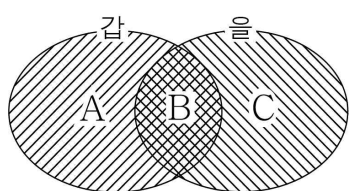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고대 서양 사상이자 갑, 중세 서양 사상이자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자연법은 명령을 통해 의무를 부여하고 금지를 통해 악을 피하게 하는 올바른 이성이다. 인간과 신의 최초 결속은 인간과 신에게 존재하는 이성의 토대에서 이루어진다.
 을: 자연법은 영원법에 대한 이성적 피조물의 참여이다.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을 분유(分有)하고 이를 통해 마땅한 행동과 목적을 향한 자연적 성향을 갖는다.

- ① 갑: 마음의 평온함을 위해 비이성적 정념에도 순응해야 한다.
- ② 갑: 세계 시민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 자연에 은둔해야 한다.
- ③ 을: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려면 자연적 성향을 배제해야 한다.
- ④ 을: 인간은 신앙을 갖지 않아도 자연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 ⑤ 갑과 을: 참된 행복은 이성애 따른 삶만으로도 성취될 수 있다.

9. (가)의 고대 동양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대인(大人)은 사람을 해치지 않지만 어둠[仁]과 은혜[恩]를 소중히 여기지도 않는다. 옳고 그름도, 크고 작음도 분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므로 명성이 들리지 않고 덕으로 칭송될 수 없다.</p> <p>을: 사람은 나면서부터 모두 소인(小人)이므로, 스승이 없고 예법이 없다면 오직 사사로운 이익밖에는 보지 못한다. 따라서 수양을 거듭하여 본성을 변화시킨 뒤에야 덕을 완성할 수 있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 보 기 >

- ㄱ. A: 인의(仁義)는 사회 혼란의 발생 원인이다.
- ㄴ. B: 예(禮)는 인위적으로 제정된 사회 규범이다.
- ㄷ. C: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수양법이 존재한다.
- ㄹ. C: 사욕을 극복하고 타고난 덕을 회복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0. 그림은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 ㉤ 중 옳지 않은 것은?

서술형 평가

● 문제 : 한국 사상이자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여 서술하십시오.

갑: 서학(西學)보다 사람의 마음을 심하게 해치는 이단(異端)은 없다. 서양 오랑캐보다 국가에 재앙을 심하게 주는 오랑캐는 없다.

을: 양학(洋學)은 우리의 도(道)와 같은 듯하나 다르다.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여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조화가 저절로 이루어진다.

● 학생 답안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갑은 ㉠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고, ㉡ 백성의 이익을 위해 서양의 과학 기술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을은 ㉢ 남녀뿐만 아니라 노소(老少)의 차별도 철폐해야 한다고 보았고, ㉣ 백성을 이롭게 하는 후천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갑, 을은 모두 ㉤ 참된 도로써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감정과 행위에 있어서 악덕은 한편으로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에 모자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반면, 탁월성은 중간을 발견하고 선택한다. 탁월성은 본질을 말하는 정의(定義)를 따르자면 중용이지만, 최선의 것과 잘 해냄의 관점을 따르자면 극단이다.

- ① 이성을 발휘하면 덕과 악덕 사이의 중용을 발견할 수 있다.
- ② 용기는 항상 무모함과 비겁함의 양극단 사이에 있는 덕이다.
- ③ 이론적 학습과 탐구만으로는 어떠한 탁월성도 갖출 수 없다.
- ④ 선에 대한 앎을 갖춘 사람은 자발적으로 악을 행할 수 없다.
- ⑤ 모든 행위는 모자람과 지나침이라는 두 악덕의 상태를 갖는다.

12.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불안은 자유의 가능성이다. 이것이나 저것이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능성은 불안으로 개인을 압도하지만, 개인은 신앙을 결단함으로써 불안을 극복할 수 있다. 불안은 신앙에 의해 구원의 징검다리가 된다.
 을: 불안은 자유와 책임을 의식할 때 느껴진다. 자유롭도록 선고받은 인간은 자신을 선택함과 동시에 인류 전체를 선택하는 입법자이며, 결코 자신의 깊은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 ① 갑: 윤리적 삶을 사는 것만으로 참된 실존을 회복할 수 있다.
- ② 갑: 실존적 상황에서 신과 하나가 되어도 절망에 이를 수 있다.
- ③ 을: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 ④ 을: 이성적 사유를 통해 자신의 타고난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 ⑤ 갑과 을: 객관적 진리에 의존하여 모든 불안을 극복해야 한다.

13.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간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있지 않다고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각자의 지각에 의해 판단한 것이 각자에게 참입니다.

아닙니다. 모두에게 참인 보편적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영혼을 수련함으로써 보편적 지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덕 역시 지식입니다.




< 보 기 >
 ㄱ. 갑: 사물의 가치는 각자에게 각자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
 ㄴ. 을: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만 인간은 인식할 수 없다.
 ㄷ. 을: 덕을 아는 사람은 곧 유덕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ㄹ. 갑과 을: 인간과 사회는 진리 탐구의 대상이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4. 중국 유교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이(理)는 오직 하나일 뿐이다. 도리는 같은데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군신에게는 인(仁)과 경(敬)의 이가 있고, 부자(父子)에게는 자(慈)와 효(孝)의 이가 있다. 모든 사물도 이를 갖는데 그 적용은 서로 다르다.
 을: 이는 마음의 조리(條理)이다. 이가 임금에게 발현되면 충(忠)이 되고, 부모에게 발현되면 효가 된다. 나의 마음에서 발현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세상에 어찌 마음 밖의 일이 존재하고 마음 밖의 이가 존재하겠는가.

< 보 기 >
 ㄱ. 갑: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마음속 앎[知]이 확충된다.
 ㄴ. 을: 양지를 사물에 실현하면 사물은 이치를 얻게 된다.
 ㄷ. 을: 효를 행하려면 먼저 효의 이치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
 ㄹ. 갑과 을: 격물은 마음의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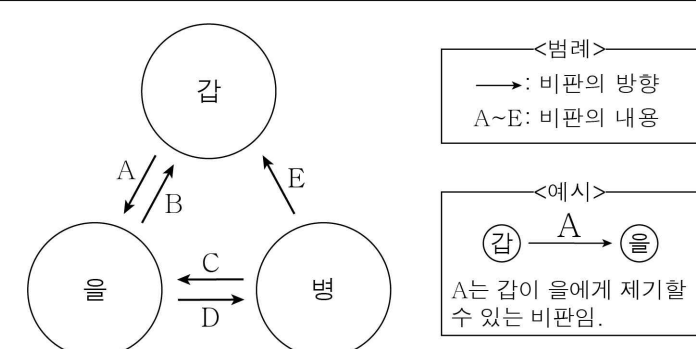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의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E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하늘의 달은 진짜 달이고 물속의 달은 그림자일 뿐이다. 성(性)이 기(氣) 가운데 있는 것은 물속의 달과 같으니, 기를 겸하여 말하고자 한다면 이미 성의 본연이 아니다.
 을: 그릇이 움직일 때 물이 움직이는 것은 기가 발할 때 이(理)가 타는 것이다. 그러나 물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이는 무위(無爲)이며 기는 유위(有爲)인 것과 같다.
 병: 벌이 여왕벌을 호위하는 것을 충(忠)이라 하지 않는다. 벌은 정해진 마음[定心]을 따랐을 뿐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람은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받아 선을 행하고자 하면 선을 행할 수 있다.

(나)



- ① A: 인(仁)은 기질이 섞이지 않은 이(理) 자체임을 간과한다.
- ② B: 인은 그 주된 바[所主]가 기에 있는 정(情)임을 간과한다.
- ③ C: 인은 마음에 있는 성이 아니라 마음의 기호임을 간과한다.
- ④ D: 인은 인간의 기질지성에 포함되어 있는 덕임을 간과한다.
- ⑤ E: 인은 자주지권의 발휘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임을 간과한다.

16. 고대 동양 사상이 갑, 현대 사회사상이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대국이 소국을 공격하고 강자가 약자를 강탈하는 것은 천하의 큰 해악이다. 이러한 해악의 근원은 차별하여 서로 미워하는 것에 있다. 서로 사랑하고 이익을 나누는 것 [兼相愛 交相利]으로 서로 미워하는 것을 대신해야 한다.
 을: 부국과 빈국 사이의 무역은 한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더 많이 갖는 착취로 표현할 수 있다. 착취는 일종의 구조적 폭력이고 직접적 폭력으로 이어지며 주류 이론이 떠받치는 문화적 폭력에 의해 유지된다.

- ① 갑: 자국 백성의 이익을 위한 침략 전쟁은 의로운 전쟁이다.
- ② 갑: 사랑은 친소(親疏)에 따라 분별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 ③ 을: 문화적 폭력은 국가 간 경제적 착취를 정당화할 수 있다.
- ④ 을: 모든 폭력은 구조적 폭력에서 비롯되며 무한히 재생산된다.
- ⑤ 갑과 을: 약소국을 보호하기 위한 무력 사용은 항상 허용된다.

17.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의 입장에서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계(戒)를 닦아 선정[定]을 얻고 선정을 닦아 지혜[慧]를 얻어 해탈하면 탐욕이라는 번뇌, 존재에 대한 번뇌, 진리를 알지 못해 생겨난 번뇌가 없어지게 된다. 해탈을 얻어 청정한 행[梵行]이 확고해지면 다시는 다음 생(生)을 받지 않는다.

- ① 중생이 겪는 고통은 원인과 조건 없이도 생겨나는가?
- ② 중생이 번뇌를 끊고 해탈하면 더 좋은 생으로 윤회하는가?
- ③ 중생의 자아가 불변의 실체임을 아는 것이 곧 깨달음인가?
- ④ 중생의 삶은 본래 고통이 아님을 지혜로써 파악해야 하는가?
- ⑤ 중생은 연기법에 따라 오온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존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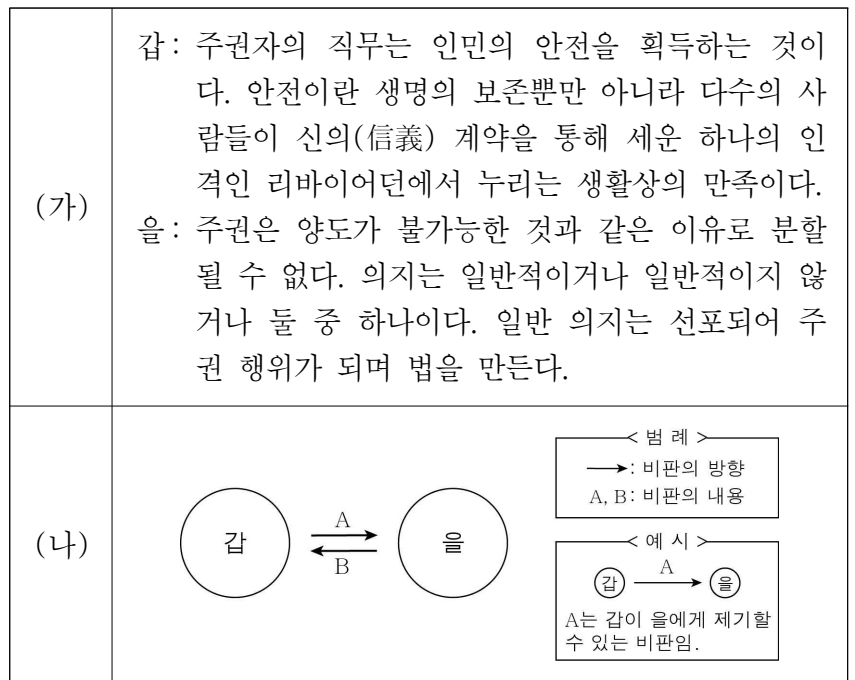
18.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인간이 사물을 실재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사물을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 관련지어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물을 신 안에 있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발생한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후자의 방식으로 우리의 정신과 신체를 파악하면 필연적으로 신을 인식하게 되며, 정신이 신 안에 있고 신에 의해 인식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보 기 >
 ㄱ. 신 없이는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고 인식될 수 없다.
 ㄴ. 신은 무한 양태이며 모든 유한 양태의 내재적 원인이다.
 ㄷ. 정신은 신체와 달리 자연의 인과 법칙으로부터 자유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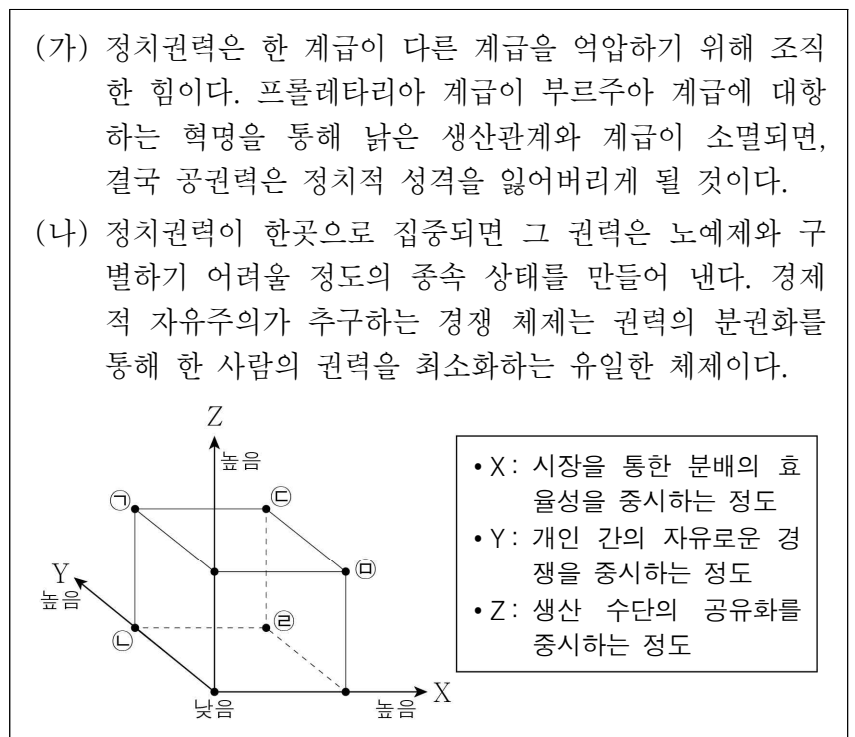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19. (가)의 사회사상이 갑, 을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 주권자는 스스로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② A: 주권자의 권력은 인민에 의해 철회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B: 주권자는 법을 제정할 권리를 보유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④ B: 주권자에게는 사회 계약 준수의 의무가 없음을 간과한다.
- ⑤ B: 주권은 사회 계약의 당사자인 인민에게 있음을 간과한다.

20. (가), (나)는 사회사상이다.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